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0. 4. 12(월)  
산 업 위 원 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3. 31
- 나. 제 안 자 : 김용근 의원 외 8인
- 다. 회부일자 : 2010. 3. 31
- 라. 상정일자 : 2010. 4. 5(제18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 김용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전문위원 김복기
  - 질의 및 토론
  - 원안채택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일반 산업 폐기물의 위생적인 매립·처분을 위해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으로 건설하고 사업비와 관리·운영비 등 필요한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 서울시는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최근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부지를 매각한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바,

-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수익금 전액이 지역 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지역 및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함.

####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의회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 매립지 매각대금 전액(1,000억원)을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변 환경개선과 수도권매립지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
- 인천광역시의회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이 주변지역과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 중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1.22km<sup>2</sup>의 토지매각대금(추정금액 1천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매립지 및 주변 환경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 인천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매립지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동 수익금이 매립지와 주변 환경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바, 인천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전달하는 동 결의안의 채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 김을태 위원

- 협정서의 재점사항은 무엇인지?
- 과거 서울시에서 110억원을 세입처리 하였을때 인천시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 지금까지 서구 주민을 위해 지원한 사항은?

### < 답 변 >

#### ○ 환경녹지국장 이상익

- 수도권매립지이 소유권이 환경부와 서울시에 있어 이익금에 대한 처분을 소유권자가 결정하는 점과 이익금을 매립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점이 서로 상충됨.
- 인천시에서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담당 국장과 만나 논의 중에 있음.
- 매년 주민지원금이 110억 지원되고 있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한도섭, 박희경, 강창규, 김성숙, 김을태 위원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채택(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문 1부. 끝.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촉구 결의문

서울시는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최근 경인 아라뱃길사업 부지로 편입된 1.22km<sup>2</sup>의 부지를 매각한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0년에 체결된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은 쓰레기 매립지 조성 등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시가 쓰레기만 남기고 수익금 전액을 세입 처리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이러한 서울시의 이기적인 행태는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와 함께 소중한 생활터전을 잃고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 한다는 소명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 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지역이기주의를 더욱 조장할 우려를 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는 서울시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수익금 전액이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과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는 서울시가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 매립지 매각대금 전액(1,000억원)을 지역주민의 고통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변 환경개선과 수도권매립지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처분 등의 수익금 전액이 주변지역과 인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협정서」 개정 등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4.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